

강임준 군산시장, 지역현안 위해 행보 나서

내년 국가예산 확보 위한 국회방문에 이어 정부부처 방문 고군산 내부도로 공사추진 위해 특별교부세 반영토록 요청

강임준 군산시장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방문에 이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부처를 방문하는 등 광복 행보를 펼치고 있다.

16일 강 시장은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김부겸 장관, 조봉업 지역발전정책관, 송경주 교부세과장을 차례로 면담하고 현재 군산의 위기상황을 설명하며 최근 육로로 연결되어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고군산 연결도로 기반시설 확충과 해양수산 복합 공간 조성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특히 총 사업비 77억의 고군산 내부도로(신시선) 확충공사는 고군산군도의 관문인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공사추진을 위해 30억의 특별교부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 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해양수산 복합 공간 조성을 포함한 군산의 지역현안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한 물론 당면사업의 기대 효과 등을 제시하며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강조하고 특별교부세 지원을 재차 당부했다.

이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별교부세를 포함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강임준 시장은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특히 군산



16일 강 시장은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김부겸 장관, 조봉업 지역발전정책관, 송경주 교부세과장을 차례로 면담하고 현재 군산의 위기상황을 설명했다.

의 현 상황은 타 지자체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전라북도 정치권, 행안부 등 중앙부처와 면밀하고 긴밀한 공조시스템을

유지해 나가며 지속적인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산=김정훈기자

정현을 익산시장, 폭염속 민생현장 살펴

무더위 쉼터 방문, 안전 확인 나서 어르신들 애로·건의사항 청취

정현을 익산시장이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17일, 무더위 쉼터를 방문 안전 확인에 나선 한편 이용 어르신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정 시장은 냉난방기 작동여부, 무더위 쉼터 간편착탈 여부,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 리플릿 및 포스터 비치여부, 무더위 쉼터 관리대장 비치 및 작성여부, 무더위 쉼터 청결 상태 등을 확인했다.

앞서 시는 무더위 쉼터 435개소에 설치된 냉난방기 636대를 대해 가동 점검을 완료했으며, 폭염대책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심화대책도 등에 그늘막 67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그늘막 22개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또 익산시는 시민들의 많이 이동하는 장소에 열음을 비치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 시장은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어르신들은 물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상태가 걱정



스럽다며 "작은 피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그늘막, 열음비치 등을 설치 운영하여 지열을 낮추는 방안 등도 추가로 강구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폭염피해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2018년 폭염 종합대책도 마련해 오는 9월 말까지 시민안전과, 경로장애인과, 보건사업과를 중심으로 폭염대책 TF팀을 운영하며, 비교적 냉방시설이 잘 갖춰진 경로당 및 행정복지센터 435개소를 무더위 쉼터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익산=우병희기자

군산시의회 211회 임시회 폐회 예결위원장 김우민 의원 선출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가 제8대 전반기 들어 처음 열린 임시회를 10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마쳤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각 상임위원으로 2018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특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조경수)는 수년째 답보 상태인 군산 비응도 군부대부지 관련 간담회를 통해 새로운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폭넓은 의견수렴과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새만금과 고군산군도의 연계



된 관광인프라 구축의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졌다.

17일 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9명을 호선하고 김우민 의원(아 선거구)과 지해춘 의원(사 선거구)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이에 앞서 유선우 의원을 비롯해 김성곤, 김영일, 배형원 의원 등이 현 사회적 문제나 지역현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군산=김정훈기자

익산시, 전라북도 주관 2분기 체납세 징수왕 선정

이기훈 주무관, 지방재정 확충기여 공로 인정

익산시청 징수과 이기훈(46) 주무관은 최근 전북도 주관 2018년 2분기 체납세 징수왕에 선정, 도지사 표창을 받게 됐다.

이기훈 주무관은 자동차번호판 영치업무 담당하면서 체납세 납부안내문, 번호판 영치 사전안내문 및 체납고지서 발송으로 자진납부를 유도, 21억7,000만원을 징수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주무관은 책임징수 담당 체납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기법으로 고질민원에 대하여 이해와 설득으로 융통성 있게 대처함으로써 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하는 등 친절·신뢰행정의 모범이 되고 있다.

이기훈 주무관은 "같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체납세 징수왕으로 선발돼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세무공무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시민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는 공무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기자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낭산 폐석산 복구지 현장방문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철원)에서는 제210회 임시회 기간 중인 17일 낭산면 소재 폐석산 복구지 방문, 관련 부서로부터 불법 반입폐기물 처리 현황 및 침출수 대책 등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출처 환경오염이 확산 되지 않도록 환경오염 방지 조치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박철원 보건복지위원장은 "폐석산 불법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내에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기자

군산시,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 실천 홍보활동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자원재활용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실천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13일 군산예술의전당 주차장 옆 광장에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캠페인'을 실시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핵심 4가지인 비운다, 행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내용이 적혀 있는 홍보물을 배부하며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을 홍보하고 특히 이물질로 오염된 종이, 비닐, 스티로폼 등은 재활용이 되지 않아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고 홍보활동을 펼쳤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가져가고 나눠먹고, 다 먹고, 수분제거를 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라는 가·나·다·수 실천수칙도 함께 알렸으며 다 쓴 건전지 10개를 가져오면 새 건전지 1세트(2개)로 교환해주는 행사도 진행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과 음식물쓰레기 감량 실천 방법을 효과적으로 홍보했다.

/군산=김정훈기자

군산시, 하반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단속 실시

군산시는 하절기 장마철 휴가철 등 취약시기를 틈탄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은 사업장 내 보관·방치하고 있거나 처리 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을 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투기하는 환경위반 행위가 증가하는 시기이다.

이번 감시활동은 오는 8월까지 실시되며 2개반 4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단속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접 지자체와 교차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폐수 배출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비밀배출구 설치여부, 고장에 따른 미가동 행위 등의 시설점검과 사업장내 보관중인 폐수 가축분뇨 폐기물 등의 공공수역 무단방류 등의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강우 시 산업단지 및 주요 하천에 대

해 감시반을 편성하여 순찰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군산시는 고의·상습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위반행위가 지속되지 않도록 시설 복구 및 기술지원 등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차성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오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업장 종사자들의 관심과 노력 필요하며, 시민분들도 환경감시자가 되어 오염행위 발견 시 적극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이번 단속을 통해 오염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한편 시에서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국번 없이 128번 또는 군산시 환경정책과(☎454-3400), 당직실(☎454-4222)로 신고하면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